

온세상 사람들에게 알림!

저작권 1994 - 2020 Bill's Bible Basics

초판발행: 1997년 10월 13일

개정판 발행: 2020년 1월 30일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다른 예배 의식을 위한 교회, 절, 회교사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다양성 때문에 정말 어떤 종교를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위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수많은 종교들에 둘러싸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혼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이러한 종교들이 제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단호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리를 향한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가진 기본 사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여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였으며, 실제로 우주 그 자체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 가지 종교는 일신교라고 불리우며, 이러한 절대적 유일신 사상으로 인하여 다른 신앙체계들과 구별됩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유일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종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다양한 신이나 여신들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다신종교의 예를 들면 인도의 힌두교가 있는데, 이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명상법들이 유래하였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자연의 힘을 숭배하는 위카(Wicca)나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는 신도(神道)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우는 보통사람 하나를 신격화시켜 그를 모시는 사원을 짓고 그의 상(像)을 만들며, 그 사람의 신조와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도 합니다. 불교가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사실 불교도들이 부처를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부처에 대한 극진한 숭배를 보면 가히 그를 신의 범주에

포함시킬 만합니다.

어떤 신앙체계에서는 심지어 우리 인간이 곧 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자구 능력에 의존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도 우리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신앙체계는 뉴에이지 개념에 속하는 사상들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으며, 또 다양한 종류의 명상기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산테리아(Santeria)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는 사탄과 사악한 어둠의 세력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사탄교와 악마숭배 사상은 스스로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살아있고 건재합니다. 그들은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그것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음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예술의 형태로 대담하게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발전된 나라(선진국)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숭배하며 물질만능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탄의 미끼 보따리입니다.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적 성공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는 밟고 넘어가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마치 상품으로 지위나 높은 급여가 걸린 머리 쓰기 게임에 건 전당금품 같은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신이나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잘못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 그 자체를 마치 동화처럼 취급하며 부정하면서, 우리의 현생은 그저 현상 그대로일 뿐이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뒤따르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기를 중단하고 땅 속에서 썩어질 뿐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나 살아남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사이에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교가 절대적인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권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심하고 따라도 좋은 종교임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타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란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사라지고 없는 더 나은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아무런 댓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구세주를 믿지 않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새 세상에서의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거나, 여러 번 되풀이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성하거나, 또는 많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선한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기독교의 근본적인 믿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필자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 다 부족하고, 늘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이 곧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거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또 무엇이든 '나'에게 좋은 것이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라 여깁니다. 바로 이러한 좋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전쟁, 살인, 성폭행, 불법적인 낙태, 도둑질,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압제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위선적 가면을 쓰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본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곤 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릇된 우월감이나 이기심 또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악한 마음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다른 이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불행하게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은 책임감이 있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였을 때 벌을 주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성경말씀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대한 징계에 관해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성경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 상반)

“...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하반)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0:31, 12:29)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15)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 하는 자들과 마술 하는 자들과 우상숭배 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8)

그것은 참으로 비싼 댓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을 고집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간혹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그렇게 메기신다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안다면 더욱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불순종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불순종한 자녀를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시 감싸 안게 되듯이, 하나님 또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진노하고만 계시지는 않으며,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우리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별문제가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시며, 또 그렇기때문에, 다윗이 시로 썼듯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시편 103:13-14)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참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고대 이스라엘)을 휩쓴 극심한 고난 중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성구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 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예레미야애가 3:22-23)

그러므로 여러분도 방금 읽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심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 하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는 평화가 주도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다음 성구들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 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33)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로마서 5:1)

“그러나 한 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에베소서 2:13-18)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7)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코자 함이라.” (골로새서 1:19-22)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앎이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29:11)

앞의 말씀들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우리 형제나 자매나 친구 중의 한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못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실을 상세히 알려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성구들을 통해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또 속죄양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온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속죄받을 길을 열어 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속죄 즉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속죄’란 말의 성경적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사실 윌리엄 틴데일이 만들어 낸 말인데, 화해를 통해 아버지와 하나 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본 순간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내가 보았고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요한복음 1:29, 34, 36)

무엇보다 먼저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런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없었다’입니다. 구약성서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죄는 제단 위의 흠없는 염소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속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약성서에는 짐승을 희생시키는 의식에 관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더 나은 일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쓴 글에 설명되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한 새 언약의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계약서(신약)를 작성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역사상 최후의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성경적 진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들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3:7)

“그가 읽고 있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8:32)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베드로전서 1:18-20)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6:28)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24)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밀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22:20)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25)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3: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ی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6-13)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율법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15, 22)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히브리서 12:24)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정죄함을 받아들였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았으며,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불모로 잡힌 바 되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통해서 그 몸값을 치루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성구들에 의해 진실임이 증거됩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 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마태복음 20:28)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마가복음 10:45)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28)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23)

“그 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13-14)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디모데전서 2:5-6)

보시다시피, 정말 너무나 큰 대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녕은 돌아보지 않고, 단지 우리들의 미래, 즉 우리가 장차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복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헤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하늘나라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목숨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을 잠시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5-11)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2:14-15)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된 임무는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까지도 자유롭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로하여금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다음에 덧붙여진 성경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31-32, 36)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주의 기쁨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8:15, 21)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셨고, 또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장차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은 여러 서신서에서 거듭 거듭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기대를 나타낸 성구들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 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18-25)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25-27)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사도직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디도서 1:1-2)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가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11-13)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7)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5-6)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 주기를 바라노니” (히브리서 6:11)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베드로전서 1:1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 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3-5)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요한일서 3:2-3)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그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 받아들여질 만한 속죄제물로서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감람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 내용은 필자의 글 「그래서 당신은 정말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 밤에 그는 죄악으로 가득찬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중에 그토록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행동은 정말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8)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음이라.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16)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10)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39)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소위 현자, 성자, 철학자 그리고 스승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지혜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들의 심원한 가르침과 함께 보여 준 사랑과 인내심과 관용의 예시들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의욕을 불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인간을 위해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 중 그 누구도 영생을 위한 길을 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는 정말 그 일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정확한 근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당신보다 먼저 나타났던 거짓 예언자들과 장차 틀림없이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8)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24)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 자신이 실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단 하나뿐인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하반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28)

얼마 후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된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임을 깨닫고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12)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야말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부터 비롯하였으며, 예수 없이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필자가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조금 설명했듯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거듭 선언합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과 영생을 받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영생을 내려 주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야고보서 1:17, 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았듯이,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떤 다른 종교에서 우리의 좋은 업적이나 훌륭한 행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아마 스스로의 이기심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이 진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또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대조하는 다음 성구들을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8-9)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5)

“은혜로 된 것이면 더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로마서 11:6)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은 - 그 때는 이름을 사울이라 불렀습니다 -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던 지극히 열성적이고 독선적인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자신의 소위 의로움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한 충실함으로 인하여 천국행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최소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숙명적인 날까지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겸허하게 낮추도록 해 주셨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실로 비참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낼 것인가?” (로마서 7:24)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9)

하나님이 잠시 사울의 자만심을 어루만져 주신 후에 이렇게 엄청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다니! 불행히도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은 자아가 강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한 표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며, 남보다 조금 더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실상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런 것을 악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 64:6)

더욱이 솔로몬왕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차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현명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잠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교만은 멸망 앞에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 앞에 있느니라.” (잠언 16:18)

잠깐 동안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당신이 젊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진심으로 당신 자신이 항상 모범적인 삶을 이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을 한 적이 있거나, 또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다른 남자에게 속해 있는 어떤 여자에게 강한 욕정을 느낀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틀림없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 - 만약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만한 일들 - 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에 의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계명 중의 첫째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라.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마가복음 12:29하반-31)

당신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행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숨길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에게까지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어들어 있는 악한 생각까지도 알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9)

사실 성경의 첫째 권인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노아의 대홍수 직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자세히 보셨고, 그런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언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소멸시키기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길만이 인간의 악행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정화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즉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5-7)

창세기의 대홍수가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사악함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독백하셨습니다.

“...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21)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인간의 타락함과 죄 중에 있음과 구원자가 필요함을 통렬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관한 예언(메시아 예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53:6)

다윗왕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 후에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타락상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시편

14편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굽어보시어 깨닫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시나 그들은 모두 다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4:1-3)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 특별한 일화를 보면,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소로운 비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응대하였을까요? 다음 성경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5:17-20)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7:20-23)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게 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그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 다윗왕이 쓴 시편 14편의 일부분을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10, 21-23)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악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이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려는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일임이 명백합니다. 서양의 옛말에, ‘그대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그대의 죄가 그대를 찾아 낼 것임을 명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민수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성구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가 드러나는 몇 가지 성구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민수기 32:23b)

“그 분의 눈이 사람의 길 위에 있나니 그 분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도다.” (욥기 34:21)

“내가 내 죄과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3)

“오 하나님여,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69:5)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으니,” (시편 90:8)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잠언 15:3)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총만케 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24)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다니엘 2:22)

“... 촛불을 켜서 곡식 되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마가복음 4:21b-22)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누가복음 12:2)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2:22)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계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4:13)

사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위시한 그들의 여러 편지에서 우리 개개인이 장차 주님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성구들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로마서 14:12)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10)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4:4-5)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히브리서 9:27)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펼쳐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요한계시록 20:11-13)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상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우리 각자에게 결산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이 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난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왔는데...”,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난 은행을 털 적이 없다구.”, “난 절대로 성폭행 같은 건 한 적이 없어.”, “나는 정말 왜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 라거나 “내가 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 또는 “난 착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귀하는 정말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일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아가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존경에 찬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음을 알게 되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17b)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임을 알려 주셨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당신께서 아시는바 그 사람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일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란 것과, 그가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며, 그러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심지어는 이런 저런 잘 조직된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도와 드려야 한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런 생각은 마치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구원사업에 우리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고 하셨으면 그 일은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 위에 덧붙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앞에서 읽으셨듯이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썼듯이 그저 둘 중 하나만입니다.

다시 죄의 정의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짧게 딱 잘라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3:4)

‘범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신약에서 그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법 바깥에서 살다’ 또는 ‘법을 위반하다’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anomia, parabasis)에서 파생되었는데, 그것은 ‘법을 파괴한다’ 또는 ‘법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성구에서 요한이 말한 율법이란 정확히 무슨 법을 말할까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인간의 삶을 경영하기 위하여 세상에 알려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법 즉 구약성서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민족의 삶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 다 같이 말해 주듯이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구약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수백 가지의 율법(Mitzvoth 613 계)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에 직면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내’가 최우선이고, 나 자신의 생존이란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에베소서 5:29a)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거의 확실히 살기에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실상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사악함과 소위 범법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다음 두 성구를 보십시오.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1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2-4)

그러므로 되풀이해서 말하면, 필자가 쓴 글 「최상의 법(The Royal Law):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에서 역설한 것과 같이, 성경적 율법 중 으뜸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 그것이며, 모든 다른 율법들은 그 안에 포함됩니다. 야고보는 그 사랑의 계명을 ‘최상의 법’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성구를 보십시오.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8)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최상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오는 어떤 편이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야고보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우리가 만일 율법 - 오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 - 의 모든 항목을 다 지키더라도 그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성구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10)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야고보 사도는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켰더라도 613 개의 미쓰바(mitzvoth) 계율 중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그 모든 계명을 범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야고보 사도가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 깊이 새기려고 한 주안점은,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어떤 사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해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매우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려고 애썼던 일입니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읽으신 대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일점일획도 예외 없이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을 통해 얻는 의(義)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의를 확립할 길을 찾아야 했는데, 필경 미쓰바를 세밀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괄호 안의 말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예수님을 통한]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0:3)

그 때문에 그들은 갈 바를 모르게 되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의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필자가 다른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바울이 눈을 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킨 후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에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그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들의 의로움을 확립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편지글에서, 어떤 사람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거듭거듭 주장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밝힌 아래 성구들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 분[예수]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사도행전 13:39)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3:19~27)

“한 사람[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 . .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5:17, 21)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7:4)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8:10)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4)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16, 21)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11)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라디아서 5:4)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빌립보서 3:9)

율법을 모두 지키려는 것은 무익한 시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허사입니다. 앞에서 보신대로 우리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서는 완전히 선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다 율법을 어겼으며, 그로 인하여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피해 나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흥정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고된 대로 유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미 배워 알게 된 대로,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면제받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름처럼 가려서 그 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죄의 가장자리에 희망의 빛 테두리가 보입니다. 죄를 범하고, 책망을 당하고, 판결과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 -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몰라도 -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 많은 행동 때문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필요한 것은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사랑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6)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 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12-13)

그러므로, 이미 설명해 드려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도 바울은 몇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에베소서 2:19)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줄곧 원하시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멋대로인 그분의 자녀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유명한 성구를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1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개념은 다른 성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한 사도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 위대한 입양계획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의 성구들을 음미해 보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 사랑을 보고 즐거워하십시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로마서 8:15-17)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27)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 .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 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2-6, 10-11)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기만 함으로써, 또 우리의 죄를 참회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재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서와 재회는 죽은 후의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당장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 없애 버릴 수가 있으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 아들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지은 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 없앨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 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2,5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썼듯이 말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18)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은 순전할 수가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법을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목표에 조금씩 못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표준을 충족시킬 만큼 완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야말로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다시 들어 봅시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1)

앞서 이사야서로부터 인용한 성구에서 보듯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어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면 말씀드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든 개의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며, 또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하신 계약의 조건을 당신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당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셔야 하며, 그리고는 그 죄가 어떤 것이든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다면 당신은 용서도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래는 오래 전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9)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쓴 것처럼 우리 중의 누군가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여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래의 성구를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19)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4)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디도서 1:2)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 중 각각 맡으신 부분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선하시며, 믿을 만합니다. 그 말씀들에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 있으며, 또 그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인간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즉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요한복음 12:32)

‘모든 사람’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무교임을 자처하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완전히 버려진,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자기의 몫을 다한 것이지요. 이제 당신 자신의 할 바를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분의 자녀 중 하나라면 당신은 그 사실을 알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타고 당신의 마음을 향해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의 사람인지 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창세 때부터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다음의 성구를 잘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2:19)

우리가 앞서 로마서 10장에서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바를 살펴보거나 의로운 업적 또는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울 수 없음을 설명한 후에, 그저 예수님만이 ‘최종적인 의의 법’이라고 단순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도를 다음의 두 귀절로 알려 주었습니다.

“내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9-10)

그러므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로 고백하는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자존심, 허영심, 그리고 ‘난 혼자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을 내어버릴 시점에 도달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시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만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신다면,

만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계시다면, 나는 당신을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음날로 미루는 것은 전혀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도 당신에게는 그만큼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는 다 늙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회개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이 구원과 영생을 굳게 확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2)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14)

당신의 미래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당신 쪽에서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만일 마음의 준비는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지 못하시겠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짙막한 기도를 해 보십시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기도는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종교적 의례로서 여러 번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마음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기도를 통하여 당신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받아들임의 문제임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매체 또는 그 전달하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기도문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제가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당신 자신의 진심 어린 믿음 그 자체입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으시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발 바라옵건데 아드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제게 영생을 허락하시옵소서. 바라옵건데 저의 삶을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일생 동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가 하고자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그들도 저와 같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웁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나 아니면 비슷한 기도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었고,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록판은 그 어린 양(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기었고, 이제 당신은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예수 자신이 이 새로운 영적 탄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체 높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종교적 견해를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그 대화 중에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3-7)

당신이 방금 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의 영은 거듭났고,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우레 같은 박수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는 무슨 대단한 감정의 격동 같은 것을 느끼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당신이 방금 요청하신 모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크게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방금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될 권세를 받아 그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5:7,10)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이 새 생명을 얻어 그분과 함께하시게 된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 세운 믿음 생활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이 지금 즉시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신자로서는 먼저 네 가지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삶, 그분의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 등에 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맞는 크리스천을 찾아 그들과의 동반관계를 형성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Bill's Bible Basics'를 방문하셔서 지금 읽으시는 이 글과 같이 성경말씀으로 가득찬 글들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글들은 성경과 기독교신앙에 관련된 많은 의문들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7 가지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언어별로 별도의 파일이 PDF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https://www.billkochman.com/Message-To-The-World/Message-To-The-World.html>

이제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필자는 이 글이 여러분께 새로운 사실을 알려 드렸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고 영감을 주는 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시면 인터넷상의 친구들과 위의 URL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Facebook, Twitter, Tumblr 또는 어떤 다른 SNS에 가입되어 있으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위 페이지에 있는 각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에 언급된 내용이나 이 글의 내용과 연관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글들을 더 읽고 싶으시면 아래의 글 목록에 있는 글들을 찾아 보십시오. 모두 'Bill's Bible Basics'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All Are Given a Chance, But . . .

Beholding the Evil and the Good

Free From the Fear of Death: Law and Works vs Grace

Holy Qur'an and Islam: A Doctrine of Devils?

Is the Message of Salvation Meant for All Men?

Not Everyone is a Child of God

OSAS: Are We Once Saved, Always Saved?

Salvation is Free Through Jesus Christ

Selfishness: A Prophesied Sign of Our Times

So You Really Think You Are So Humble?

The Lamb of God Was a Goat!

The Marriage of the Lamb

The Royal Law: Thou Shalt Love

이 글에 인용된 모든 성구는 「한글킹제임스성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글의 영어 원문이 King James Version (KJV)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본을 택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 글의 원저자는 Bill Kochman입니다.

wordweaver777@gmail.com

<https://www.billkochman.com>

*역자 주: 「최상의 법: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The Royal Law: Thou shalt love
[<https://www.billkochman.com/Articles/royallw1.html#anchor1234567>]